

園藝學科 教育의 문제점과 개선안

吳 成 都

(全北大 園藝學科)

1. 園藝學教育의 특징

園藝라는 말은 中世紀 때 유럽에서 궁정이나 大莊園의 울타리 안에서 여러 가지 植物을 예술적으로 가꾸는 기술을 말하였으므로 庭園 가꾸기(gardening)의 의미를 갖고 있다. 그 당시 채소, 과실나무, 꽃들은 전부 울타리 안에서 自給用으로 가꾸었으므로 이들을 가꾸는 기술을 원예라 하였고, 오늘날에 와서는 그 뜻도 넓어져서 주로 主食으로 쓰이고 있는 穀類를 제외한 副食用作物과 嗜好性作物을 취급하고 우리의 視聽을 즐겁게 하여 주거환경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觀賞植物을 다루는 것이다. 그러므로 園藝學은 크게 園藝食品生産分野, 觀賞植物生産分野, 造園分野로 나누어지는데 원예식품생산 분야는 菜蔬學, 果樹學이 있고, 관상식물을 다루는 분야는 花卉學이 있으며, 조원 분야는 觀賞樹育苗 및 관리, 公園 및 造園園地 설계·조성·관리, 庭園施工 및 관리, 잔디管理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원예학은 식물과 식품과의 關係, 造園과 꽃과의 科學的·藝術的 調和, 나아가서 채소, 과실, 관상 식물에 대한 科學인 것이다.

그러므로 원예학이 담당하게 될 업무 분야는 다음과 같다.

- ① 꽃, 과실, 채소의 新品種 育種
- ② 채소, 果樹, 花卉 생산
- ③ 造景서서비스나 庭園센터 관리

- ④ 加工이나 冷凍食品用 원예작물 생산 및 감독
- ⑤ 온실, 화원 또는 苗圃場의 관리·경영
- ⑥ 植物生長 및 발달을 조절하는 植物生長調節物質을 이용한 研究 수행
- ⑦ 園藝學講義, 著述
- ⑧ 원예에 관계되는 사업, 원예학의 專門的 業務分野(教授·學者)
- ⑨ 원예작물을 대상으로 하는 造園工學 연구
- ⑩ 低開發國家에 대한 園藝作物生産增進을 위한 技術協力

이상과 같이 광범위한 원예 분야를 다루게 된다.

그러므로 園藝學科 학생들은 植物을 배우며, 그들을 어떻게 재배할 것이며 環境에 의해서 어떠한 영향을 받으며 그들을 어떻게 商品化할 것 이냐를 배운다. 또한 학생들은 성공한 造景業者, 채소·과수·화훼 生産業者를 방문하여 실제로 園藝産業의 現場을 봄으로써 학교수업에서 배우지 못한 실질적인 問題點과 現實을 알게 되며, 특히 원예학은 現場實習을 통해서 경험하고 觀察에 의해서 얻은 지식만을 實用的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내에 있는 실험실, 온실, 채소·果樹實習圃場에서 일을 하게 된다.

2. 우리나라 원예학과의 發展過程

園藝는 農業에 있어서 基本이기 때문에 農業

系學校가 설립된 때부터 園藝學 강의는 설강되었다. 1909년 水原農林學校 本科 敎科課程에 우리나라 최초로 園藝作物이 등장하였으며 水原農林學校가 1918년 3월에 3년제 農林專門學校로 승격되어 우리나라 최초의 高等農業敎育機關이 되면서 園藝汎論이 2학년 前後學期에 걸쳐 주당 1시간씩, 3학년 전학기에 채소, 후학기에 과수가 각각 2시간씩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당시의 교육을 오늘날 農科大學에서의 교육과 비교할 때 가장 두드러진 差異는 高農에서는 실습을 중시했으며 勞動精神을 함양한다 하여 肉體의 勞動도 많이 시켰었다는 점이다.

1938년 6월 15일 서울 新堂洞에 私立京城園藝學校가 설립되었다. 1942년에는 東萊公立農林專修學校가 3년제의 東萊公立園藝專修學校로 개편되어 해방 이후까지 계속됨으로써 園藝專門學校가 해방 당시 2개나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전부 高等학교 수준이었다.

大學으로서서는 어느 대학을 막론하고 農學科에 채소, 과수, 화훼 등을 설강하고 있었으나 이때에는 원예작물의 生産을 위한 분야만을 강의하였다. 그러나 觀賞植物 분야가 발전하면서 농학과에서 취급하기가 어렵게 되었고, 농학과에서 園藝에 관한 과목 몇 개만을 강의하고서는 園藝産業 發展에 기여하거나 부응할 수 있는 人材를 배출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므로 대학으로서서는 慶北大學校가 처음으로 1952년 4월에 園藝學科를 설치하였고 <표 1>,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25개 대학에 원예학과 또는 園藝專攻이 있게 되었으며, 農科大學이 있는 곳에는 원예학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專門大學 원예학과까지 합치면 원예학과 卒業生은 每年 1,000여 명에 달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근래에 와서 원예학과가 많이 탄생하게 된 原因은 원예산업은 國民所得이 향상됨에 따라 발전하게 된다는 데 主眼點이 있다. 主食이 해결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맛있는 반찬을 마련할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고 嗜好性食品의 소비가 늘기 마련이며, 食生活에 여유가 생기면 아름답고 편안한 住居環境을 생각함에 따라 주변환경을 아름답게 또는 집안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한 觀賞植物, 造園에 눈을 돌리게 되는데 이들

<표 1> 大學의 園藝科 설치 현황

大學名	設置年度	學新入部生募集員定	大學院籍數大在生	敎授數	備考
경북대	1952. 4	40	11	9	
서울시립산업대	1953. 10	20	—	3	조경과의 원예 전공
동아대	1954. 1	40	3	4	
효성여대	1961. 1	40	2	4	
고려대	1961. 5	40	27	4	
건국대	1964. 2	30	12	4	
진강대	1964. 3	40	12	3	
제주대	1967. 3	40	3	6	
서울남대	1967. 10	30	24	4	
영남대	1971. 12	40	2	6	
전북대	1972. 10	40	4	4	
충남대	1972. 12	40	9	5	
강원대	1973. 10	40	2	6	
경희대	1974. 3	30	13	3	
경상대	1974. 12	30	3	4	농학과 원예 전공
충북대	1974. 12	40	3	5	신예조경과
성균관대	1978. 3	40	—	3	(천안분교)
단국대	1981	40	—	2	
배재대	1981	40	—	3	(충주분교)
건국대	1981	40	—	3	
순천대	1982. 2	40	—	5	
대구대	1983. 9	40	—	2	
중앙대	1985	39	—	4	원예육종과
목포대	1985	50	—	2	원예육종과

<표 2> 專門大學의 園藝科 설치 현황

學校名	設置年度	新入生員定	敎授數	備考
안성농업전문대	1965	80	5	
진주농림전문대	1965	40	8	
예산농업전문대	1966	40	5	
순천농업전문대	1970	80	6	순천대로 승격
상주농잠전문대	1973	40	4	
계명실업전문대	1974	80	4	
연암축산전문대	1981	120	7	
신구전문대	1974	80	4	

이 바로 園藝이다. 현재 세계적으로도 아름답고 살기 좋은 나라는 모두 園藝産業이 발달한 곳이므로 우리나라도 未來指向的으로 원예가 최근 들어 急增하게 된 것이다.

3. 敎科課程의 문제점

1) 우리나라의 敎科課程

원예학은 菜蔬學, 果樹學, 花卉學, 造園學을 기본으로 하여 좋은 種子를 생산·육종하기 위한 園藝採種學, 生産品을 잘 보존·유지함으로써 좋은 품질의 生産品을 판매하기 위한 園藝貯藏學, 최근에 와서는 비닐하우스, 溫室 등 시설을 이용하여 年中 신선한 채소, 과일, 꽃을 공급하려는 促成栽培, 周年栽培, 無土壤栽培를 위한 施設園藝學이 원예학과의 필수과목이다.

각 대학 원예학과의 교과과정은 다음과 같은 세 분야로 나누어 편성된다는 점에서 大同小異하다.

첫째로, 園藝作物栽培를 하기 위하여는 원예작물의 生理를 알아야 하고, 生長·發達을 조절하는 生長調節物質도 알아야 하며, 이들을 이해하기 위하여는 生化學도 알아야 하기 때문에 植物生理學, 植物生長調節論, 生化學 등 植物生理 분야의 과목을 설강하게 된다.

둘째로, 재배를 잘하기 위하여는 土壤條件도 알아야 하며 비료도 잘 주어야 하기 때문에 土壤學, 肥料學이 필요하고, 病害虫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植物病理學, 農業昆蟲學, 이들을 防除하기 위한 農藥學, 농업이 雜草와의 싸움이라고 할 정도로 除草에 많은 노력이 들어가므로 이를 效率的으로 제거할 수 있는 雜草防除學 등 專攻基礎分野가 필요하다.

셋째로, 좋은 種子나 새로운 品種을 만들기 위하여 알아야 할 遺傳育種分野 등이 있다.

대학에 따라서는 基礎學을 튼튼히 하겠다는 의도에서 기초학을 必須로 하거나, 園藝生産學을 필수로 하고 專攻基礎 및 基礎學을 選擇科目으로 하고 있는데 대부분 後者를 택하고 있으며 敎科目도 大同小異하다.

<표 3>은 우리나라 원예학과의 敎科課程 편성을 基礎 및 專攻基礎, 園藝食品生産分野, 觀賞園藝分野, 貯藏加工分野, 實驗實習分野로 나누어 교과목을 분류해 본 결과로 園藝專攻分野보다 基礎 및 專攻基礎分野가 훨씬 많은 比重을 차지하고 있고 實驗實習 및 세미나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地域에 따른 특색으로서는 사과 主產地인 慶尙

<표 3> 우리나라 園藝學科의 敎科課程

大學名	農基礎學	園藝食品生産基礎學	園藝生産學	觀賞園藝學	觀賞園藝關係學	貯藏實習	새미나	實驗實習
강원대	7	9	4	6	0	1	3	
전국대	6	6	8	7	1	2	2	
김북대	9	7	5	2	1	2	8	
김상대	7	5	2	3	1	2	11	
경희대	6	5	5	2	1	2	7	
고려대	3	5	4	5	1	0	8	
동아대	4	6	4	8	1	2	5	
서울대	8	4	5	3	1	1	3	
영남대	13	6	6	3	1	1	5	
전남대	8	5	4	3	1	2	12	
전북대	14	8	5	6	1	2	15	
제주대	8	3	7	6	1	2	10	
충남대	16	8	5	8	1	1	6	
충북대	9	4	5	3	1	2	6	

北道에 위치한 慶北大學校에 사과栽培論이 설강되어 있고, 감귤栽培地인 濟州大學校에 감귤栽培論이 2강짜 7학점이 설강되어 있을 뿐이다.

2) 外國 大學의 敎科課程

(1) 美 國

美國園藝學會에서 발간되는 *Hort Science* 16권 3호(pp.261~266)에 발표된 바에 의하면 美國內에서 園藝學科 및 造景學科가 설치된 大學數는 모두 86개교에 달한다. 이것은 學部만을 갖고 있는 대학까지 모두 포함한 수사이며 우리나라의 모든 대학과 같이 大學院을 갖고 있어 博士까지 배출하는 학교는 42개교뿐이다. 물론 이것은 순수한 園藝學科만이 아니고 造景學科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이 資料에서는 원예학과와 조경학과를 구별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순수한 원예학과가 몇 개인지는 알 수가 없었다.

美國의 활동적인 몇몇 대학의 원예학과 敎科課程을 우리나라의 경우와 같이 분류해 보면 <표 4>와 같다. 여기서 보면 美國은 대학에 따라서 교과과정이 다른데 특이한 것은 園藝食品生産分野보다 觀賞園藝分野가 훨씬 많다는 사실이다. 美國의 원예학과 學部에서는 家庭園藝를 중심으로 하여 학부를 졸업하면 식물을 직접 키우고 정원을 가꿀 줄 알며 產業的 園藝라기보다는 그 지

〈표 4〉 美國 大學의 敎科課程

大學名	農業基礎學	園藝食品基礎學	園藝食品生產學	觀賞園藝學	저장 및 용이	세미나	실험 및 작업
Horticulture 와 Landscape 의 專攻分野가 분리되지 않은 大學							
Univ. of Illinois	5	5	4	14	—	1	1
Michigan State Univ.	2	5	4	9	—	2	1
Ohio State Univ.	4	3	9	13	11	1	2
Horticulture 와 Landscape 의 專攻分野가 분리된 大學							
Univ. of Minnesota	3	7	4	11	—	2	3

역의 住居環境을 아름답게 만드는 데 역점을 두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졸업 후에는 公園管理, 造景園地, 都市美化事業 등에 管理人으로 채용된다. 한편 과수, 채소 등 園藝食品生産業이 성행하는 지역의 대학은 원예식물생산 분야를 많이 설강하였으나 그래도 觀賞園藝 분야보다는 적다.

더우기 園藝造景學科(Department of Horticulture and Landscape Architecture)로서 園藝와 造景이 분리되어 있는 대학에서도 원예전공에서 觀賞植物 분야가 많고 園藝生産 분야가 적으며 基礎 및 專攻關聯 분야가 적다. 특히 專攻基礎學 분야는 전부 高學年에 설강되어 있어 大學院生과 共同受講할 수 있고 大學院 認定學點 들인 것이다.

(2) 日本

日本은 園藝學科가 독립되어 있지 않다. 東京大學의 경우는 農業生物學科에서 農業生物學專攻, 綠地學專攻(우리나라의 造景學專攻과 같음)으로 나누고 두 전공 모두 細胞學, 遺傳育種學, 植物營養學, 植物病理學, 應用昆蟲學 등 기초학을 필수과목으로 개설하고 農業生物學專攻에서 다시 I, II, III群으로 나누어 각 群에 선택 필수과목을 두어 第I群은 우리나라의 農生物學科에서 다루는 과목을 개설하였고, 第II群은 工藝作物學, 飼料作物學, 菜蔬學, 果樹學, 花卉學, 養蠶概論, 農作業論을 개설하여 農學科, 園藝學

科, 養蠶學科 과목을 망라하고 있으며, 第III群은 農業生物實驗 II, III을 두어 基礎學實驗을 통하여 학문을 익힐 수 있도록 하였다. 이 과정을 거쳐서 분야를 결정하면 다음 단계로 선택필수과목에 관련되거나 전공과 관련된 選擇科目을 두었는데 34과목을 개설하고 있다. 京都大學의 경우는 농학과에 果樹園藝學 I, II, 花卉園藝學, 菜蔬園藝學, 施設園藝學, 園藝利用學을 설강하여 원예학에 대한 지식을 부여하고 있다.

이와 같이 日本의 경우는 農科大學內의 科를 여러 개로 분리·독립시키지 않고 科內에 있는 教室別로 敎授, 助敎授, 助手를 두어 강의 및 연구를 충실하게 하고 있다. 따라서 科를 세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은 졸업 후 폭 넓게 就業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와 같이 학교의 評價를 學生數, 學科數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科를 신설하지 않고 敎育施設 확충, 敎授增員으로써 內實을 기하고 있다. 하지만 日本의 園藝産業은 세계 제일을 謳歌하고 있는 것이다.

(3) 우리나라와 외국과의 差異點

우리나라는 美國의 學制를 모방하여 각 농과 대학마다 원예학과를 설치하고 있으나 교과과정은 園藝食品生産 위주로 되어 있으며 기초학을 많이 두어 너무 專門化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 園藝系統의 就業門이 좁으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또한 研究職이나 專門職이 아니고서는 실제 園藝知識利用 분야에 종사하게 되면 學部에서 배운 지식을 바로 쓰지 못하게 된다.

美國의 경우는 食生活이 米穀 위주가 아니고 육류 및 채소, 과실이 主이며 園藝加工品의 소비가 많아서 원예산물을 이용한 加工業, 冷凍業 등이 발달되어 있고 이를 위한 원료의 品質檢査, 集荷, 檢受 등 園藝專攻인이 해야 할 일이 많으며, 公園, 公共綠地管理 등 社會環境美化事業이 활발하여 이에 많은 원예학과 졸업생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食生活이 米穀中心이기 때문에 모든 政策과 行政力이 主穀增産 및 自給化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園藝産物은 副食 내지는 嗜好性食品으로서만 쓰이고 있다. 果實類는 매일 먹는 필수품이 아니라 과자의 성격을 띤 嗜好食品이며 원예산물의 加工業이 극히 저조하고 대부분 축산물 및 밀가루 가공품 또는 수산물 가

공품분이기 때문에 식품가공업체에서 園藝作物 加工原料 생산 및 品質管理에 대한 인원이 필요 없게 되어 우리나라 대학의 교과과정에는 園藝作物利用 및 加工에 대한 과목이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원예학과는 자연히 營農形式의 純粹 園藝食品이나 觀賞植物生産 위주의 교육을 강화 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는 고등학교 수준의 農業 學校에도 원예과가 있어 실제 園藝作物栽培生産 에는 더욱 실용적인 교육을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高等學校水準 農業教育學校로 서는 순수한 農業學校와 綜合高等學校 또는 實驗 高等學校란 校名下에 農業關係科를 운영하는 非 純粹農業學校가 있다. 이들 중에서 원예학과를 설치하고 있는 학교는 純粹農高 29개교, 非純粹 農高 12개교 합계 41개교이며 학급수는 150개, 졸업생수는 매년 약 3,000명 이상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 원예학과가 있는 專門大學이 8개에 졸업생수는 400명에 달하여 園藝作物 生産만을 위한 기술자로서는 이로서는 충분하지 않나 생각한다. 그러므로 大學教育에서는 좀더 專門化 되고 細分化된 교육을 해야 한다는 데에 아래 현재와 같은 敎科課程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너무 전문화되다 보니까 學術的 基礎分野가 많아짐으로써 園藝學研究 내지는 專門性에 치우치게 되어 農業研究機關 또는 試驗場에서의 作物生産增産 을 위한 研究를 뒷받침하는 교육 내지는 체제가 되어 졸업 후 이 방면에 人材要求가 없게 되면 문제가 생기기 마련인 것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日本에서는 농학과에서 독립시키지 않고 넓게 묶어서 농과대학 졸업생을 필요로 하는 곳 이면 農科, 園藝科, 農産物科를 구별하지 않고 어디나 취업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는 것이다.

4. 敎授 및 講義상의 문제

1) 觀察 내지는 實習敎育의 輕視

앞에서 교과과정이 園藝作物生産 위주로 되어 있다고 하였는데 원예작물을 생산하기 위한 지식 및 이에 관련된 학문을 익히기 위하여는 무엇보다 現場敎育이 필요하다. 흔히 農業은 經驗科學 이라 한다. 원예작물은 종류가 많고 環境 및 栽培條件에 의한 變異가 많기 때문에 체험에 의한 지식이 되어야 잊혀지지 않고 응용할 수도 있

지 暗記式敎育은 아무런 효과가 없다. 그러므로 菜蔬, 果樹, 花卉, 施設園藝에 있어 모두 실제 경험을 하고 觀察을 하면서 배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 대학에는 附屬農場이 있어서 작물을 다룰 수 있으나 실습농장에 대한 豫算이 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원예학 실습이 學生 勞力動員形式이 되는 경우가 많고 따라서 실습 교육이 경시되고 교과내용과는 동떨어진 不充實한 實習이 되어 버리고 다는 경우가 많다.

農作物의 生育 및 發育過程은 시기적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교과내용과 작물 발육시기가 일치되어야 合理的 강의를 할 수 있는 어려움이 있다. 즉 實習과 강의를 동시에 하여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관찰로서 터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文敎部나 대학 당국에서는 實習敎育을 강화하도록 권장하여 외국 대학보다 실습시간이 많으며 현장실 습도 3,4학년에서 義務化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말했듯이 園藝生産業은 零細하기 때문에 試驗研究機關과 같은 공공기관을 제외하고는 企業農이 다양하지 않으며 小規模自營農에서는 學生管理 등이 소홀하고 單純勞動이 초이기 때문에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가 어려워 형식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大學 자체에서도 실습을 경시하고 있다. 이는 實習은 2시간을 해야 1학점을 인정해 주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나타난다. 예를 들어 菜蔬園藝學 및 實習이라고 하면 실습이 있기 때문에 週 4시간을 강의하여도 3학점으로 되어 있어 모든 대학이 實習學點은 주당 배정시간의 1/2을 인정하는 것이다. 물론 注入式講義는 교수가 강의 준비 및 강의시간 내내 설명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지만 실습을 제대로 하기 위한 實習材料 準備는 더욱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이 실습에 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교수 혼자 힘으로는 부족하여 助敎 또는 大學院生의 도움이 필요한데 어찌하여 學點認定을 적게 하는지 의문이 생긴다. 따라서 학점 인정이 적게 되는 실습에 대해서는 학생들이나 교수나 수업을 等閒視하게 되고 자연히 注入式, 暗記式 敎育만이 더욱 성행하게 된다.

특히 원예작물은 그 종류가 많고 生育時期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효과적인 실습을 하기 위하여 實習圃場, 溫室 등 많은 시설이 필요하지만 이런 것이 갖추어졌다 하여도 時期를 놓치지 않도록 많은 시간을 實習準備에 할당해야 한다. 실험실이나 공장에서 하는 실습은 教科書 進度에 따라 아무 때나 할 수 있지만 원예작물은 地域的 制限이 있고 生育時期에 自然環境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강의하는 교수가 시기에 맞게 적절히 조절하면서 맞추어야 한다. 그러므로 원예학은 대부분 2학기에 걸쳐서 總論, 各論으로 나누어져 있으나 종론, 각론의 구별 없이 對象作物 生育時期에 맞추어야 하고 내용도 教科書 目次 순서대로가 아니라 시기에 맞는 목차부터 강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2) 專攻學點의 부족

現 實驗大學 체제하에서의 졸업 취득 학점은 140학점으로 非實驗大學系列의 160학점보다 20학점이 적으며, 그것도 敎養 및 系列共通이 60학점을 차지하고 있어 專攻 및 專攻基礎는 80학점에 불과하다. 美國의 많은 대학이 180학점 이상을 취득해야 하며, 日本의 경우는 대부분 전공과목이 80학점 이상으로 우리와 같으나 과목 해당 학점이 대부분 2학점(重要科目은 일부 4학점인 경우도 있음)으로 우리나라의 3학점보다 학점이 적어서 履修科目을 많게 하고 있다.

文敎當局이나 敎育界에서는 지금보다 더욱 敎養課程을 강화하여 元老敎授로 하여금 강의를 맡도록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1,2학년 학생에게 실시되고 있는 교양과정은 그 해당 學科에서 專攻科目을 이수하는 데 필요한 敎養科目이 아니라 전공과목과는 동 떨어진 과목으로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갖추어야 할 一般敎養科目이다. 그렇기 때문에 大學내 모든 單科大學을 망라해서 1학년생이 이수하는 과목은 거의 비슷하기 마련이며 따라서 그 많은 학생을 강의하자니 대부분 時間講師로 충당되고 있다. 이와 같이 교양과목이 개별 전공 학과의 元老敎授들에 의해 담당하여질 성질의 것이 되지 못함으로 인해 현재의 교양과목은 학생들에게 大學 또는 學科에 대한 올바른 認識을 심어 주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實驗大學은 專攻科目數 및 時間을 줄이는 대신 副專攻制를 설치하여 다른 전공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또한 一般選擇科目을 다른 科에서 선택함으로써 細分化된 學制의 단점을 보완하려 하였다. 그러나 사회에서 副專攻한 者를 인정해 주지 않음으로써 학생들이 부전공을 기피하게 되었고 一般選擇은 다른 科에서 받아야 하기 때문에 자기의 專攻科目 時間과 겹치는 경우가 많아 受講이 어려워졌으며 해당 학과에서 많은 敎科課程을 제시함으로써 專攻選擇만으로 卒業學點이 인정되어 결국 實驗大學은 졸업학점만 줄어드는 結果를 낳고 말았다.

5. 改善方案

1) 敎養 및 基礎科目의 축소

우리나라 대학의 원예학교육은 基礎學, 專攻基礎, 園藝食品生産學, 觀賞植物生産學, 實驗實習이 고루 들어 있어 특징이 없다. 여기에 敎養科目의 比重이 높다 보니까 대학을 졸업해도 大學出身으로서의 교양은 갖추었으나 園藝作物을 제대로 다룰 수 있는 技術을 터득할 수 없으며 그렇다고 기초가 튼튼하여 졸업 후 바로 研究活動 및 專門職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형편은 더욱 아니다. 과목간에 連繫性이 없고 基礎와 專攻分野가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基礎學을 전공 분야에 應用하는 능력이 부족하게 된다.

그러므로 전공과목을 늘리고 기초학을 줄여서 專攻科目내에서 基礎와 관련시켜 설명을 해 나가야 한다. 實驗實習도 따로 독립시켜 時期性이 제한된 원예학에서 有名無實한 실습이 되는 과목 수만 많게 할 것이 아니라 해당 과목에 흡수시켜 강의 자체가 實驗實習을 통해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應用力과 과목간 連繫性이 생기도록 해야 할 것이다.

기초학을 줄이는 대신 大學院課程에서 기초 및 專攻基礎學을 많이 설강하여 연구 및 전문직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기초 및 전공기초가 學部에서 많다 보면 大學院에 가서 과목이 중복되고, 깊이 있는 강의를 한다지만 敎科內容이 중복되어 강의하는 사람이나 受講生이나 熱意가 적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학문을 하거나 전문직

에 종사할 사람은 대학원에서 基礎學을 강화함으로써 問題解決을 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學部에서는 實用的인 문제를 좀더 광범위하게 알고 大學院에 가서 基礎學을 통한 研究能力을 배양토록 해야 한다.

2) 園藝食品生産 위주 教育의 탈피

앞으로 國民所得이 향상함에 따라 원예작물의 消費는 확대될 것이다. 그러나 현제도 채소의 調理用, 과실의 生食用 消費는 선진국에 뒤지지 않고 있으나, 加工品은 형편없는 상태이다. 敎科課程에 있어서 貯藏, 加工, 利用에 관한 과목이 거의 全無한 상태이므로 이 분야의 과목을 늘리고 지식을 넓혀 나감으로써 國際化時代에 대비케 하며 날로 늘어가는 外食産業에 호응해야 할 것이다. 물론 食品加工學科가 있지만, 좋은 품질의 加工品을 만들기 위하여 좋은 原料를 생산하여 品質管理를 하는 것은 園藝人이 해야 한다.

또한 지금과 같은 園藝食品生産은 農村經濟에 국한된 문제이고 앞에서 말했듯이 원예산업이 小規模이며 영세하기 때문에 졸업생들의 就業問題가 대두되게 된다. 그러므로 원예교육은 외국과 같이 都市生活者나 農村生活者나 온 국민의 경제형편이 나아지던 자연히 관심을 갖게 될 家庭園藝, 環境園藝 쪽으로 넓혀 나가야 할 것이다. 더우기 앞으로 環境汚染이 더욱 심해질 것이므로 園藝를 통한 環境改善問題를 생각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한다. 또한 앞으로의 원예는 無土壤生産이 상당히 활기를 띠는 것이므로 이러한 분야도 알게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3) 地域的 特性的 강화

앞에서 말했듯이 많은 園藝學科들이 서로 다른 特徵이 없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많은 수의 원예학과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될 수 있다. 좁은 우리나라에서 地域에 따른 特性이 무슨 필요가 있겠느냐고 한다면 지방마다 園藝學科를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된다. 그러므로 각 대학마다 좀더 깊이 연구해서 그 지역의 特性에 맞는 敎科課程을 만들어야 대학 또는 地域마다 원예학과를 설립한 意義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원예학과가 園藝食品과 觀賞植物生産學으로 모두 통일되다 보니

가 외국에는 아직 없는 觀賞園藝科, 園藝育種科 등이 생기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므로 각 대학마다 敎科課程에 特徵을 둔다면 이러한 학과들이 생기지 않을 것이며 세분화되지도 않을 것이다.

4) 教育課程의 개편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에 속하며 實現不可能한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理想論을 편다면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며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라 생각되어 제안한다.

지금처럼 農業高等學校, 專門大學, 大學이 모두 똑같이 원예학과를 두고 園藝生産學 분야만을 설강하여 약간의 水準差만을 둔 채 가르칠 것이 아니라, 현재 農業系高等學校 지원자가 점점 감소하고 있고, 이제는 대학도 大衆化추세에 있어 國民의 知的 水準을 높인다는 의미에서 大學定員 및 學科를 점점 늘려 나간다면 오히려 農業高等學校나 專門大學을 점점 늘려나가고 대신 정규대학 園藝學科에서 폭 넓게 實用的인 면까지 가르쳐서 專門營農技術者로 만들어 내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技能工, 技師, 技術士 등 여러 계층의 專門技術人力을 두어야 되는 工場과 技術者 한 사람만 있으면 모든 역할을 다하며 때로는 이 기술자가 經營人, 主人까지도 도맡아 할 수 있는 園藝産業과는 근본적으로 差異가 있어서 特殊分野를 제외하고는 고등학교 졸업자나 전문대학 졸업자나 어느 한 계층의 專門人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園藝技術者輩出의 경로를 一元化함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원예기술과 원예학이 어떤 것인지를 터득한 후에 大學院에 진학하여 원예학에 관한 學問的 知識 내지는 園藝研究를 하는 데 필요한 基礎學들을 공부하도록 함이 理想的인 것이다.

만일 대학에서 實質的이며 實用的인 專門知識人을 배출하는 것보다 本然의 學問연구를 目的으로 한다면, 우리나라에서 필요한 專門職이나 研究職에 종사할 수 있는 인원을 충원할 정도의 大學만을 남겨서 현재와 같이 基礎學, 專攻基礎, 專攻分野를 골고루 가르쳐 理論的 知識을 부여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어 감히 제안해 보는 것이다. *